

01 교회소식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가득한 날

교회 창립 33주년을 맞아 국내외 인사들과 함께 기념예배와 축하 행사를 통해 친히 이끄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렸다.

02 생명의 말씀

사랑의 열매

성도들이 하나님께 속한 진실되고 영원히 변치 않는 참된 사랑의 열매를 맺으려면 비진리를 벗어 버리고 성결한 마음을 이루어야 한다.

03 간증

“만민교회를 만나 축복받았습니다!”

해외 21개국에서 우리 교회 창립행사에 참석한 내빈과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한 간증.

04 특집

전 세계를 깨우는 만민의 사역

성결을 강조하는 복음과 놀라운 권능의 역사를 체험하고자 해외 곳곳에서 많은 사람이 우리 교회를 방문하고 있다.

만민뉴스

제708호 2015년 10월 18일 (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교회 창립 33주년 기념예배 및 축하공연

해외 21개국에서 참석, 수준 높은 기독교연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



우리 교회가 창립 33주년을 맞아 지난 33년간 놀라운 성령의 역사로 함께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축복된 시간을 가졌다. 10월 9일(금)과 11일(주일),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설교(사진①)에 이어 각각 전야 행사와 창립 축하공연(사진④, ⑦)이 있었다. 해외 내빈들은 예배와 공연에 은혜받고 이재록 목사와의 만남으로 행복해했으며(사진③, ⑥), 초대받은 성도들은 앞마당에 준비된 야외 행사(사진②, ⑤)에 참석해 함께 기쁨을 나눴다.

지난 10월 11일 오후 3시, 주일 저녁예배를 통해 전 성도는 국내외 내빈들과 함께 교회 창립 33주년 기념예배 및 축하행사를 성황리에 마쳤다.

특히 미국, 이스라엘, 이집트, 스페인, 멕시코, 케냐 등 해외 21개국에서 교계 및 정·재계 인사 및 선교사와 성도 200여 명이 참석해 예배와 행사는 영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등 9개 언어로 동시통역 됐다.

이날 당회장 이재록 목사는 금요일 창립 전야예배와 주일 대예배에 이어 ‘만민의 역사(히 2:4)라는 제목으로, 기사와 표적, 재창조의 권능으로 전 세계 만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우리 교회 권능의 사역에 대해 전하며, 오늘날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렸다.

전 세계 170여 개국을 커버하는 GCN(세계기독교방송네트워크) 방송 및 인터넷을 통

해 생중계 되는 가운데 설교 후에는 ‘만민의 역사’라는 주제로 예능위원회(위원장 이희진 목사)에서 준비한 화려한 축하공연이 펼쳐졌다.

가장 영광스러운 천국 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 성도들이 이 땅에서 있었던 만민의 사역을 추억하며 연회에 참석해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내용을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곡들로 아름답게 표현했다.

이 공연은 우리 교회 예능위원회 닥시 오케스트라와 예능팀을 비롯해 공연전문 스태프들이 조명과 음향, 영상, 특수효과 등을 맡아 수준 높은 무대를 선사했다.

미국 세르게이 마르티노크 박사는 “전에는 본 적이 없는 아름다운 공연이었다. 천사들의 음악이 울려 퍼지는 것 같았고 성령의 임재하심을 느낄 수 있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평안과 행복, 그리고 감동적인 시간

이었다.”라고 말했다.

또한 아랍에미리트 요나스 게브레울드 목사는 “오스트레일리아나 유럽 등 많은 대형 교회 행사에도 참석해 보았지만, 이렇게 웅장하고도 큰 축하행사는 처음이다. 성도들이 서로 섬기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으며, 이재록 목사님에게 깊은 선의 향기가 느껴졌다.”라고 했다.

이날 교회 앞마당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의 목자의 성 계절 동산을 배경으로 한 포토존이 꾸며졌다. 아울러 남·여성교회, 가나안·청년선교회에서 정성스럽게 준비한 먹거리들이 마련돼 성도들은 물론, 초청받은 일가친지들에게 행복한 추억을 선사했다. 또한 만민의 33년 역사를 한눈에 관람할 수 있도록 홍보관이 새롭게 단장돼 성도들의 눈길을 끌었다.

한편, 창립 전야행사로 진행된 10월 9일

금요일예배 2부에는 ‘꽃들의 잔치’라는 주제로 축하공연이 있었다. 가장 영광스러운 천국 새 예루살렘의 목자의 성, 꽃의 동산에서 열리는 축제를 연주와 무용으로 표현해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는 무대였다.

이 밖에도 해외에서 참석한 내빈들은 10월 12일 월요일, 전남 무안만민교회 앞 바닷가의 잔물이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기도로 단물로 변한 권능의 현장, 무안단물터를 방문해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된 성경 상역사(출 15:25)를 체험하는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다.

1982년 10월 10일, 창립예배를 드린 우리 교회는 33년 만에 1만여 자·협력교회를 둔 초대형 글로벌 교회로 급속한 성장을 이뤘다. 본격적인 제3도약기를 맞이해 오중복음과 권능의 역사로 민족복음화와 세계 선교가 더욱 창대하게 펼쳐질 것이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22~23)

사랑의 열매

역사하면 육에 속한 아들이 물러가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전구에 빛이 들어오게 하려면 발전기를 연결할 뿐 아니라 가동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항상 깨어 불같이 기도하며 성령의 주관대로 순종해 진리를 행해야 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성령의 소육을 좇는 것이며, 이렇게 열심히 행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마음이 진리로 변화돼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소육을 좇고자 할 때 이것을 방해하는 육체의 소육이 있습니다. 육체의 소육은 성령의 소육과 반대되는 것 즉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 등과 같은 것들을 취하려 하고, 갖가지 죄와 불의와 불법을 행하려는 것입니다. 이런 육체의 소육을 좇을 때 성령이 탄식하시므로 마음에 곤고함이 찾아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17절에 “...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육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육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했습니다. 성령의 소육과 반대되는 육체의 소육을 좇으면 그 열매는 죄와 불법인 육체의 일로 맺히고 결국은 구원과 멀어집니다(갈 5:19~21). 성령을 좇아 행할 때야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갈 6:8).

2. 첫 번째 성령의 열매인 사랑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세상 사람의 사랑은 썩어지고 변질되는 육적인 사랑입니다. 반면, 하나님께 속한 사랑은 진실되고 영원히 변치 않는 영적인 사랑이지요.

하나님께서 첫 사람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그에게 주신 사랑은 영적인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영이 죽고 죄로 인해 육으로 타락해 버렸습니다. 이때부터 사람들의 사랑도 육적인 사랑으로 변질되기 시작했지요.

그리하여 오늘날 영적인 사랑을 찾아보기 힘든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변질되고 자기

유익을 구하며 자기 뜻대로 정욕을 좇는 육적인 사랑만 가득합니다.

부부간에도 처음에는 서로가 “당신이 없으면 못 산다.”고 하지만 막상 결혼하면 변하지요. 결혼 전에는 상대에게 맞춰 주려고 했는데, 이제는 자기 뜻대로 안 따르면 상대를 힘들게 합니다. 이혼도 쉽게 하고 얼마 되지 않아 다른 사람과 결혼도 합니다. 그러면 서로 상대를 사랑한다고 고백하지요.

부모와 자녀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자녀를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주는 부모들도 혹 있지만, 세상이 악해지는 만큼 자녀를 위해서조차 희생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줄어들어갑니다. 서로 유익에 안 맞으면 원수 맺는 경우가 많지요.

형제간이나 친구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과 조건, 자기 생각과 맞을 때만 지속되는 사랑이며, 조건이 달라지면 언제든 변합니다. 결국 대가를 바라고 주는 것이며, 이 모든 것은 육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면 영적인 사랑은 어떤 것일까요? 사랑장이라 불리는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영적인 사랑 곧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사랑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이보다 한 차원 높은 영적인 사랑이 바로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중에 하나인 사랑의 열매입니다. 자기 생명까지 줄 수 있는 희생이 포함된 영적인 사랑이지요. 곧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형제를 위해, 심지어 자신을 미워하는 원수를 위해서도 ‘생명을 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입니다.

3. 사랑의 열매를 맺으려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최고의 사랑을 주셨고, 주님께서도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생명을 주기까지 사랑해 주셨다는 사실을 머리모양이 아닌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해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향한 신뢰에 변함이 없고 끝까지 생명 다해 충성할 수 있습니다. 영혼들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향한 진실한 사랑을 이루면 영혼들을 대할 때도 진실한 사랑을 하게 됩니다(요일 3:16).

자기 유익을 구하는 마음이 전혀 없으므로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을 내주면서도 어

떤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이처럼 참된 사랑은 육을 버리고 성결을 이룬 만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의 선진들이 어떤 사랑을 이뤘는지가 나옵니다. 모세는 자기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진다 해도 이스라엘 민족을 멸망에서 건지기를 원했습니다(출 32:32). 사도 바울은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했습니다(롬 9:3). 스테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어 가면서도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기도했지요(행 7:60).

우리는 이러한 사랑이 얼마나 맺혀 있습니까? 하나님과 주님, 믿음의 형제자매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전에 제가 “만약 천 명의 영혼들을 구원할 수만 있다면 대신 지옥에 간다 해도 그리 하겠다.”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지옥에 대해 너무 잘 알지만 지옥에 떨어질 영혼들을 구원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라도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 죽어 주신 것처럼 영혼들을 위해서라면 제 생명도 줄 수 있습니다. 의무나 말로만이 아니라 정녕 영혼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루하루 진액을 다하기까지 제 삶을 드립니다. ‘어찌하면 더 많은 곳에 복음을 전하며 더 큰 권능을 베풀어 많은 영혼이 주님을 믿게 할까.’ 날마다 이런 생각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는 독생자까지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마음에 새겨져 있습니까?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하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영혼들을 중심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 성령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신의 유익을 구하거나, 받고자 하는 육적인 사랑을 버리고, 진실하며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영적인 사랑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마음을 닦아 온전한 사랑을 이루고 가장 아름다운 천국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 영원히 사랑을 나누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는 마태복음 5장의 팔복,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 말씀과 더불어 각자의 신앙을 점검하는 척도가 되는 말씀입니다. 과연 성령의 열매란 무엇이며 그 중에 하나인 사랑의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성령의 열매란?

열매는 씨를 심었을 때 싹이 나고 자라서 꽃을 피우면서 맺게 되는 결과물입니다. 이처럼 우리 마음 안에 성령이 임하시므로 맺는 열매가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을 영접한 자녀들의 마음에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데, 성령을 받으면 죽었던 영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성령은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 깨우쳐 주시며, 죄와 불법을 버리고 의 가운데 살아가도록 도와 주십니다. 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도록 인도하시지요. 이러한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맺히는 열매가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았다고 해서 누구나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비유컨대, 성령은 하나의 발전기와 같습니다. 발전기가 돌면 전기가 발생해 전구에 빛이 밝혀져 아등이 물러가듯이 성령이



-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 1번 출구에서 횡승 5536번 시내버스(교회앞 하차)
 - 30분간격 교회버스 이용
 - 2, 3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거리
- 7호선 남구로역에서**
 - 2번 출구에서 구로남초등학교 방향, 도보 10분 거리
- 시내버스**
 - 5536, 5615번(교회앞 하차)
 - 503, 504, 571, 652, 5618, 5619, 5626, 5630, 5712, 5744번(디지털단지 오거리 하차)
- 교회버스**
 - 각 지역별로 서울시 및 경기도 일원에 운행
 - 문의 : 차량국(02)818-7391~3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자녀예배	3:00 PM
주일 빛과소금교회 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교회(요식업) 예배	11:00 PM
금요철야예배	11:00 PM
수요예배	7:00 PM
화요찬양예배 [청년·가나안]	8:00 PM
수요찬양예배 [빛과소금]	9:00 PM
토요찬양예배 [중·고등부]	4:00 PM
토요찬양예배 [아동부]	3:00 PM
다녀오실 때 기도회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다만 정기구독 시 **우송료**만은 정가구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manminnews.com
070-8240-2074

우리은행 1002-253-985877 (예금주 이경진)

만민뉴스
 등록 다-1840(1989. 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인쇄인 이호영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www.manminnews.com

만민중앙성결교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29
 대표전화 02) 818-7000



| 이스라엘 나사렛 생영교회 |
세르게이 보차르니코프 목사

“성결의 복음으로 목회가 새로워졌습니다”

‘만민의 역사’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길을 친히 인도하셨음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모습이 목회자의 귀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당회장님을 뵈 때마다 모든 삶을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만민의 성도님들이 천국 소망으로 충만하며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항상 기도할 때마다 이런 영적인 목자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의 복음의 진수는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따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 자신도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돼 성도들에게 가르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창립 33주년 축하공연은 매우 아름다웠고, 천국을 연상케 해 천국 소망을 더해 주었습니다.

성결의 복음은 말씀을 전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결한 삶을 살도록 하는 복음입니다. 당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결

이번 방문에도 세심한 사랑으로 환대해 주신 만민중앙교회에 감사드립니다.

| 이집트 오순절 교단 총회장 |
이지스 모르간 목사

“이재록 목사님의 아랍어 저서, 참 감동스럽습니다”

2004년, 처음 만민의 사역에 대해 듣고 알게 되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특히 2014년 ‘이집트 오순절 목회자 세미나 및 손수건 집회’를 통해 이재록 목사님께 기도받은 손수건(행 19:11~12)을 가지고 강사 길태식 목사님이 기도해 주실 때 갖가지 치료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목도하며 오늘날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렸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믿음의 분량』에서는 순종을 통해 믿음의 분량이 성장한다는 사실이 인상적이었지요.



이번 방문을 통해 이재록 목사님을 다시 뵈게 되니 매우 행복했습니다. 이 목사님의 사역은 오직 희생과 순종으로 영혼들을 섬기신 주님의 사역을 보는 것만 같습니다. 바로 목회자의 모델이시지요. 만민중앙교회를 만나게 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 콩고민주공화국 부총리 수석 보좌관 |
폴 무사피리 날완고 목사

“목자의 공간에서 강도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받았습니다”

권세 있는 말씀과 하나님 권능의 역사로 수많은 사람이 치료받고 응답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2006 이재록 목사 초청 콩고 연합대성회’를 통해 이재록 목사님을 알게 됐습니다. 이 목사님을 만난 뒤 제 삶은 변화돼 성결의 복음을 통해 하나님 뜻 가운데 기도하고 말씀대로 사는 법을 배워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지요.

버렸습니다. 목자의 공간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었지요.



이번 방문을 통해 영혼들을 향한 당회장님의 사랑과 희생을 느끼며 저도 이러한 사랑으로 아프리카에 성결의 복음을 널리 전하고 싶어졌습니다. 또한 축하공연을 보면서 새 예루살렘 성에 꼭 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지요. 더욱이 당회장님의 기도로 무안만민교회 앞 바닷가의 잔물이 단물로 변한 무안단물터에서는 주님의 임재를 느꼈고, 영안이 열려 아름다운 꽃들이 펼쳐진 하얀 저택을 각 사람에게 나눠주는 환상을 보며 매우 행복했습니다.

| 멕시코 |
베아트리스 꼬르니베 성도

“방송과 책자를 통해 지구 반대편에 계신 참 목자를 만났습니다”

저는 10년 동안 영적인 목회자를 찾던 중 2010년 엔라세 방송을 통해 이재록 목사님을 알게 됐습니다.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영성이 뛰어난 분이라고 느껴져 저는 설교를 더 많이 듣고 싶었습니다.

해 잠자리 세 마리가 동시에 집안으로 날아 들어온 것입니다.



만민중앙교회 창립 33주년 기념일에 맞춰 저는 당회장님을 뵈고자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사모 하던 당회장님을 실제로 보니 감동의 눈물이 흘렀지요. 어느 목회자나 크리스천에게 느낄 수 없었던 특별한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인터넷에서 만민중앙교회 홈페이지를 찾아 들어가 매일 두세 편씩 말씀을 듣다보니 1년 동안 500편 이상의 설교를 듣게 됐고, 제 삶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지요. 스페인어와 불어로 번역된 이 목사님의 저서를 읽고, 인터넷으로 만민중앙교회의 각종 예배 및 다니엘철야 기도회에 참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8월에는 목자의 공간에서 잠자리 체험을 할 수 있었지요. 제가 멕시코에 온 지 30년이 됐지만 한 번도 잠자리를 본 적이 없었는데, 올해 서울에서 ‘만민 하계수련회’가 열리는 기간에 저희 집 창문을 통

또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매우 친절했고, 교회에 아는 분이 하나도 없었는데 일꾼들이 사랑으로 세심하게 챙겨주시니 많은 감동이 됐지요. 축하공연도 아주 훌륭했습니다.

주요 프로그램 안내 2015.10.18~10.24

이재록 목사의 생명의 말씀	GCN TV설교	예능 프로그램	해외성회 및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민의 역사 2 ■ 천국 32-36 ■ 2차 영혼육 14-15 ■ 창세기 강해 31-35 ■ 요한계시록 강해 70-74 ■ 성령의 9가지 열매 1-4 ■ 믿음을 척량하시니 24 ■ 하나님의 사랑 ■ 믿음의 분량 7-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직 믿음으로 (이수진 목사) ■ 나의 수고는? (이미경 목사) ■ 착한 행실 (이희선 목사) ■ 율기 강해 7 (신동초 목사) ■ 열재앙 3 (정구영 목사) ■ 위로부터 난 지혜 1 (김수정 목사) ■ 영의 사람 (김송신 전도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알콩달콩 어여쁜 울동 43 ■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13 ■ 창조와 과학 16 ■ 내 마음의 찬양 20 ■ 모두 드려요 35 ■ English 12 ■ 옛날 옛적에 3 ■ 즐거운 요리 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페루 연합대성회 2 ■ 믿음으로 걸어온 길 12 ■ 회상 [시즌2] 5 ■ 2015 기관장 교육

GCN TV 채널 kt olleh tv 882번

사랑과 권능으로 삶을 변화시키는 '만민의 사역'

만민중앙교회 창립 33주년을 맞아 해외 21개국에서 200여 명의 내빈과 성도들이 우리 교회를 방문했다. 이들은 세계 곳곳에서 성료된 연합대성회를 비롯, 방송과 문서 등 활발한 우리 교회 해외 선교를 통해 성결의 복음과 하나님 권능의 역사를 체험해 저마다 감사와 은혜의 간증이 넘친다. 수많은 간증 가운데 지면 관계상 일부만 소개한다.

| 중남미 최대 온두라스 라코세차교회 |
미샤엘 아르헤날 목사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한국 교회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2002년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께서 강사로 사신 '온두라스 연합대성회'와 저희 라코세차교회에서 열린 '일 축복성회'는 매우 축복된 시간이었습니다. 성회 당시 1만여 명이었던 성도 수는 현재 2만 5천 명으로 부흥했습니다. 만민중앙교회 창립 33주년을 맞아 만민의 사역과 더 친밀한 사역을 이루고자 방문했습니다.

교회가 무척 영적인 분위기이며 성도님들과 당회장님과의 관계가 끈끈한 사랑으로 하나 된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다니엘철야 기도회에 참석했는데 아주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며 이러한 기도의 힘이 교회 부흥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온두라스에서 그동안 한국 교회의 모습에 대해 많이 들었는데, 이번에 비로소 만민중앙교회에 와서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한국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축하공연 또한 특별했고, 아주 예술적이었으며 매우 훌륭한 최고의 무대였습니다.

| 팔레스타인 베들레헴 임마누엘교회 |
니하트 쌀만 목사

“베들레헴 기독교인들에게 희망의 빛이 됐습니다”



베들레헴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도시이지만 현재 인구의 99%가 모슬렘이어서 사회적으로 여러 부분에서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젊은이들은 일자리를 찾지 못해 다른 곳으로 일하러 가기도 하고, 결혼식을 올릴 예식장이나 죽은 후에 매장할 묘지조차 없어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았지요. 하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을 통해 큰일을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희망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2007년 12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에서 크리스마스를 맞아 이재록 목사님을 모시고 집회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는 집회 전 강사님에게 성경에 기

록된 기적을 보여 주시라고 부탁드렸고, 그대로 기적은 나타나 베들레헴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할 수 있었지요. 집회 후 이 목사님은 필요한 것이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매장지조차 구할 수 없는 팔레스타인 크리스천들의 어려운 현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흔쾌히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며 매장지를 구해 주셨지요. 이에 성도들은 신앙생활이 쉽지 않은 이곳에서 크리스천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힘을 얻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심에 매우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2009년 9월, 예루살렘에서 개최된 이스라엘 연합대성회 시 이재록 목사님은 믿음에 대해 매우 명확하면서도 강한 메시지를 증거해 주셨습니다. 이어 환자를 위해 기도해 주실 때 많은 사람이 치료받는 것을 보며 놀라운 역사에 하나님께 감사했지요. 베들레헴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뤄지도록 아낌없는 지원으로 힘을 주시는 이재록 목사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 미국 뉴욕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 만민교회 |
비탈리 피쉬버그 목사

“초대형 허리케인이 소멸되는 기사(奇事)를 체험했습니다”



저는 만민중앙교회에 방문하기 전, 허리케인 '호아킨'의 피해를 막기 위해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께 서신을 통해 기도를 부탁드렸습니다. 그 당시 허리케인은 4등급으로 4개 주를 이미 강타해 많은 피해를 입었고, 뉴욕으로 북상해 오던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10월 4일 주일 대예배 시 당회장님께서 이를 놓고 기도해 주시자 사람들을 두렵게 했던 태풍은 소멸되고, 전날까지 추웠던 날씨가 좋은 일기로 바뀌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몇 년 전, 허리케인으로 뉴욕에 많은 집이 침수됐고, 2013년에는 허리케인으로 해안가 근처에 있는 저희 집이 피해를 입어 다른 곳으로 피신한 적이 있었습니다. 허리케인이 4, 5등급이 되면 아주 강력해서 사람이 죽기도 합니다. 그런데 당회장님의 기도를 통해 허리케인이 소멸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국내 지교회, 지정성 주소 및 연락처

주일 대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철야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부산만민성결교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 168 ☎070-8223-4191~4, 010-4182-4194
- 서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 103, 백성 B/D 7층 ☎051)326-1537, 010-7213-6207
- 해운대만민교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광어골로 76, 3층 ☎010-8020-7333
- 대구만민교회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남로 50 ☎053)356-4717, 010-4575-1934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26 ☎042)625-1205, 633-6283, 010-5434-3927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 550번길 39-33 ☎062)513-2455, 010-8888-0727
- 새광주만민교회 광주시 서구 차평로 60 302호 ☎062)372-1002, 010-2290-7779
- 동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월동로 82-10 ☎062)266-7001, 010-3637-6443
- 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남구 울질로355번길 12-1 ☎052)257-5011, 010-2485-1537

- 남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산전길 9 ☎052)291-2253, 010-2505-1537
- 안성만민교회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조밭길 64 ☎031)652-9981, 010-3278-7712
- 연천만민교회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백왕로 234번길 25-4 ☎031)835-1717, 010-2634-5478
- 천안만민성결교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길 5 ☎041)577-7077, 010-3447-7077
- 공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변영로 34 3층 ☎041)881-7000, 010-3030-7025
- 서산만민교회 충남 서산시 잠동1길 24 ☎041)667-4721, 010-2781-2073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변영로169번길 22 ☎041)546-1537, 010-2672-0244
- 서양만민교회 충남 계룡시 금암로 135 ☎042)841-0091, 010-7195-1099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326번길 32 ☎043)293-7077, 010-9271-7017
- 새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청원구 울봉로176번길 62 ☎070-4823-7173, 010-8291-7173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연수로 7 두진상가 201호 ☎043)845-0617, 010-2278-0641
- 마산만민성결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무학로 654 ☎055)247-8891~2, 010-3559-9067

- 밀양만민교회 경남 밀양시 시청서길 36 ☎055)353-9192, 010-9382-2073
- 진주문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인길 17, 2층 3호 ☎055)852-5815, 010-9196-3927
- 김해만민교회 경남 김해시 김해대로 2421 3층 ☎055)322-7055, 010-6605-2254
- 창원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성산구 연덕로18번길 28, 5층 ☎055)289-9522, 010-9331-4405
- 통영만민교회 경남 통영시 광도면 남해안대로 861 ☎055)648-9107, 010-7224-8891
- 거제만민교회 경남 거제시 신북로 3길 8 ☎055)687-6882, 010-3800-2048
- 경주만민교회 경상북도 경주시 백률로 76번길 45-1 ☎054)748-5777, 010-3747-5777
- 포항만민성결교회 경북 포항시 북구 중앙로 177 4층 ☎054)281-9367, 010-8433-2073
-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09-15 3층 ☎054)281-2468, 010-9773-7017
- 구미만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금오대로6길 30 ☎054)920-4512, 010-3343-1537
- 여수만민성결교회 전남 여수시 둔덕길 11-2 ☎061)652-8311, 010-2325-1228
- 목포만민성결교회 전남 목포시 용당로 281, 중원빌딩 301호 ☎061)284-3133, 010-2629-8275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례면 해례지도로 167-82 ☎061)452-7443, 010-3153-1723
- 순천만민교회 전남 순천시 조례못동길 27, 2층 ☎070-4028-2515, 010-2536-2515
-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절길 30 ☎063)223-9991, 010-4202-1537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평동로2길 6, (3동2층) ☎063)853-0675, 010-3637-0263
- 군산만민교회 전북 군산시 상나운안길 11, 3층 ☎063)468-7027, 010-7777-7027
- 춘천만민교회 강원도 춘천시 효자로 103 3층 ☎033)261-4217, 010-2759-7017
- 원주만민교회 강원도 원주시 개운5길 57 (개운동) ☎033)766-1535, 010-9108-2073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미시령로 3383 (3층) ☎033)637-0271, 010-7733-1327
- 강릉만민교회 강원도 강릉시 하평3길 11, 3층 ☎033)641-3790, 010-6334-7750
- 제주만민교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도9길 55-4 ☎064)745-0675, 010-2468-2251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172 ☎02)995-9951, 010-2276-1014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광덕산로 22, 안성빌딩 3층 ☎031)485-9143, 010-6395-0143
- 인천지성전 인천광역시 남구 석정로 424, 3층 ☎032)863-9857, 010-2208-5719
- 경단지성전 인천시 서구 원정로 162 ☎010-7133-9770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아람로 95 ☎010-7103-4097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촌로 18, 아원B/D ☎031)905-2419, 010-2276-1014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46, 광명빌딩 5층 ☎031)552-7397, 010-8163-1537
- 강동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508, 호유빌딩 지하 ☎02)489-3766, 010-7103-4097
- 부평지성전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 112, 5층 ☎010-7133-9770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200번길 43, 2층 ☎031)202-8480, 010-8331-1136
-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중리천로 126-7 ☎031)635-9103, 010-9458-3922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3, 2층 ☎031)840-2906, 010-8163-1537